

		<h1>보 도 자 료</h1>			
보도일시	2026. 3. 17.(화)			총 2쪽	
배포일시	2026. 3. 17.(화)	담당부서	해양 AI TF단		
담당자	김동식 과장	전화	051-749-9455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항만공사, AI 기반 스마트 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AI 기반 스마트항만 조성 및 항만 디지털 전환 협력
- 부산의 K-해양 AI 벨트 조성 전략과 연계한 실질적 협력 기반 마련
- 부산항 중심 지역 혁신성장과 항만 경쟁력 강화 기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태열)은 3월 16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와 AI 기반 스마트항만 조성, 디지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부산항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역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AI와 AX(인공지능 전환)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항만 조성, 항만·물류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성장 지원,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K-해양 AI 벨트 조성 전략'과 맞물려, 항만 분야 AI 전환과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 측면에서 의미를 더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기반 스마트항만 및 디지털항만 조성을 위한 공동 기획·실증 및 확산 △항만·물류 분야 AI·데이터 기반 기술 및 서비스 협력 △디지털·AI 기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비 및 공모사업 공동 기획과 참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행사 추진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항만 현장성과 운영 역량,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보유한 AI·디지털 산업 육성 역량을 연계해 K-해양 AI 벨트 조성 전략의 실행 기반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

해 항만·물류 현장의 AI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디지털 기업의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항만 분야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태열 원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의 강점인 항만·물류 산업과 AI·디지털 기술을 연결해 K-해양 AI 벨트 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항만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항만 실증, 기업 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산이 해양과 AI가 결합된 글로벌 해양 AI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디지털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인재양성, 실증 기반 확산 등을 통해 부산형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디지털 전환 정책과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

[보도자료 문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ESG·경영기획팀	김은지 과장	051-749-9390	ejwj@bipa.kr
	해양 AI TF단	김동식 과장	051-749-9455	dskim@bipa.kr

[사진자료]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설명) 사진 왼쪽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오른쪽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